

'우리 삶의 진정한 지휘자는 우리 자신'

서학예술극장, 오늘 '명인초청의 밤 - 금(금)의 舞(무)' 팽과리 명인 윤용준 공연

서학예술극장(대표 이여송, 예술감독 이순하)이 기획·운영하는 '명인초청의 밤 - 금(금)의 舞(무)'가 우리를 찾아온다.

서학예술극장은 국악 전용 소극장으로서 국악 활성화와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국악 공연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시행하는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 기획공연 시리즈 '소극장에서 빛나는 전통예술 3탄'을 기획했다.

총 5편의 기획공연으로 구성된 '소극장에서 빛나는 전통예술 3탄'은 지난 7월 첫 공연 '춘향, 사랑에 대한 짧은 단편'을 시작으로 4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마지막 공연 '명인초청의 밤 - 금(금)의 舞(무)'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연주하며 우리 소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팽과리 명인



윤용준 명인

윤용준이 좌중을 압도하는 타악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김영진(팽과리), 김동운(태평소), 권효창(팽과리), 김민석(팽과리), 권진우(징), 최대량(바라), 이재완(징)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소리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서학예술극장 이순하 예술감독은 "팽과리는 국악에서 지휘자 역할을 맡고 있다. 무대 위 윤용준 명인의 팽과리 소리와 그의 삶을 보고 싶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지휘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며 "이 메시지를 바쁜 사회 속에서 본인이 삶의 주체이자 지휘자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깊은 위로와 울림을 선사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어 서학예술극장 이여송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재단의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 사업 덕분에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무료로 개방해 도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예술인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드릴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매년 우리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명인초청의 밤 - 금(금)의 舞(무)'는 1일 저녁 7시30분 서학예술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사전 예매는 나투컬처(naruculture.com, 1522-6278)를 통해 가능하며(정석 무료), 현장 예매 등 기타 문의는 전화 063-231-8881(서학예술극장)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피아니스트 원재연 초청 리사이틀

9일 전주문화재단 한벽문화관 우수작품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

서정적이고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 원재연이 오는 9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이에 따르면 (재)전주문화재단 한벽문화관 우수작품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 주인공인 피아니스트 원재연은 2017년 제1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청중상을 동시에 거머쥐고 일찍이 이화경 항음악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 토티보 국제 음악 콩쿠르 수상, 스페인 페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독일 쾰른 칼로버트크라이텐 프라이즈 등 수많은 국제 대회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독일의 유서 깊은 연주 장소인 베토벤 하우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알테 아울라, 프랑스 파리 샬 가보, 뮌헨 헤라클레스 홀 등에서 초청 연주를 진행했으며, 독일(BR-Klassik), 프랑스(France Musique),

스페인(RNE), 멕시코(Rádios de Durango), 이탈리아(Rai) 그리고 오스트리아(ORF) 등에서 그의 연주가 방송됐다.

한국에서는 교향악축제, 대한민국 국제 음악제 등에 초청받았으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전주한벽문화관 김철민 관장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원재연과 함께 우수작품시리즈 무대를 꾸밀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피아니즘이 돋보이는 프로그램들로 관객들과 연주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티켓 가격은 전석 2만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주시민, 공연 재관람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및 학생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가을밤 즐기는 '국악 상설공연'

남원시는 시립국악단이 광한루원에서 선선한 가을 저녁 흥을 돋이울 상설공연을 9월과 10월 진행한다고 밝혔다.

9월은 매주 금요일 밤 8시, 광한루원(영주각, 방장정 일대)에서 '광한루의 밤풍경'이란 주제로 광한루의 수려한 밤풍경과 국악의 선율이 어우러진 국악 버스킹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9월 27일, 28일 이틀간 추석연휴 특별공연이 추가로 펼쳐진다.

또한, 광한루원 월매집에서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남원 창극 '방자, 춘향을 말한다' 공연을 진행, 남원 창극은 관객들이 믿고 보는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 브랜드 공연으로, 올해 창극은 방자를 매개로 춘향의 사랑이야기를 방자의 구수한 사투리와 입담으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화려한 군무와 관소리의 깊은 맛을 살려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10월 중 수요일 낮 11시/14시(1일 2회공연)에는 광한루원이 한눈에 보이는 완월정 누각 위에서 '전통소리춤' 공연이 이어진다. 가을 광



한루의 정경과 관소리, 무용, 기악합주, 민요 등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전통 민속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9월, 10월 광한루원은 18시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야외공연 특성상, 우천 시 취소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일본 히오키시 '맞손'

도자 문화 발전 우호 협력 교류 협약

남원시와 일본 히오키시(시장 나가야마 요시타카)가 지난달 30일 도자 문화 상생발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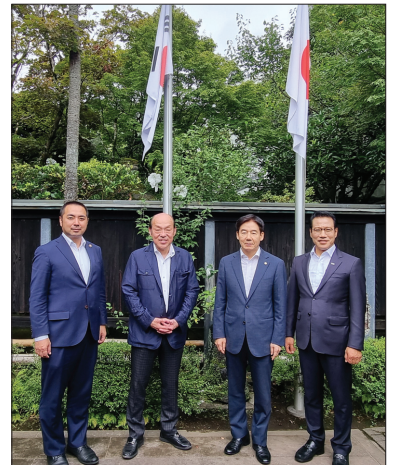
일본 히오키시는 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라는 깊은 인연이 있는 곳으로, 남원시에 따르면 가고시마 현에서 시작한 '사쓰마 도자기'는 남원의 도예 기술을 바탕으로 424년간의 일본 문화 접목시켜 탄생한 일본 3대 도맥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도자기 브랜드다.

이에 남원시와 히오키시는 '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라는 깊은 인연을 토대로, 지난 1998년부터 '사쓰마 도자기 400년제'를 계기로 그간 다양한 문화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양 도시의 이러한 우호적 관계 토대 위에 양 도시의 도자기 문화의 가치 향상과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양 도시는 향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 확대 △도자 문화의 활발한 교류 활동과 우호 증진 △국립도자전시관 유치 협력 등을 전개하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30여년의 유서 깊은 도자 문화를 기반으로 국립도자전시관 건립 계획을 공유하고, 국립도자전시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한·일 도자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든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양 도시가 이제 문화적 교류



남원시와 일본 히오키시가 지난달 30일 도자 문화 상생발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나가야마 요시타카 시장, 제15대 심수관 선생(본명 심일휘), 이용호 국회의원, 최경식 남원시장)

를 넘어서 양국의 도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상생발전의 길을 걷기 바란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자문화 교류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양 도시의 도자문화 상생발전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문화누리카드 결제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9월 초 개최되는 무주반딧불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2일부터 열리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 축제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식음료 및 문화 체험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 결제를 지원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무주 반딧불축제에서 지역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문화를 함께 누리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1~2일 양일간 서울마포에서 '2023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중저층 야외마당에서는 외부 영상(미디어 파사드) 기록의 정원을 산책하다를 상영한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린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영상을 통해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무형유산을 체험하는 행사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하는 '2023 무형유산축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연결'이라는 주제로 지난 10년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에서 상영한 작품 중 총 8편을 선정해 상영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워크숍)와, 각 작품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도 공유하

고자 한다.

이번 영상축제는 무형유산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과 내일의 연결, △세대와 세대의 연결, △일상과 무형유산의 연결이라는 세 개의 분야(섹션)로 진행된다.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와 미디어 파사드는 모두 사전예약 없이 기간 내 방문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현장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전승해 온 소중한 무형유산의 가치를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